Department of Education
Carmen Fariña, Chancellor

2014 년 9 월 4 일

학부모님들께,

2014-2015 학년도의 시작을 환영합니다!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힘차게 교육감으로서 정식 학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. 저희는 이번 학년도에 수업과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새롭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였으며, 교사와 학교가 각 가정과 소통하기 위한 더 많은 방법들을 개발하였습니다.

특히 저는 어린 손자 셋을 둔 할머니로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아동 무료 유아원(Pre-K for All)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뉴욕시에서는 5 만 명 이상의 만 4 세 아동들이 무료 종일반 유아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, 이를 통해 평생 배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습니다.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: 웹사이트 schools.nyc.gov/prek 에서 하시면 됩니다.

또한 저는 뉴욕시 전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부모님의 비용부담 없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전면 확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. 이 프로그램에는 배구, 힙합댄스, 그래픽 디자인, 수학, 과학 학습지도 등 다양한 활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매주 5 일간(3 p.m.에서 6 p.m.까지) 내실있는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, 여러분의 자녀는 사회, 정서적으로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려면 웹사이트 nyc.gov/afterschool 를 이용해 주십시오.

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보다 강화된 멘토링과 학업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과정을 눈여겨 봐 주십시오.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.

우리 학교들이 성공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에, 저희는 여러분께서 자녀의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예약을 통한 학부모-교사 면담, 매주 학부모-교사 타임 증설, 그리고 신규 학부모-교사 컨퍼런스 2 차례 등이 있습니다. 그 중 첫 번째 행사인 패밀리 나이트가 9 월 16 일(초등학교), 9 월 17 일(고등학교), 9 월 18 일(중학교)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
또한 교육감 학부모 컨퍼런스를 위해 교육청 본청(Tweed)의 문을 다시 개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것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고 학교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. 본 컨퍼런스는 11 월 1 일(초등학교), 11 월 15 일(고등학교), 및 12 월 6 일(중학교)에 실시되며 시간은 공히 9 a.m.에서 1 p.m. 사이입니다. 학부모님들을 교육청 본청과 학군 교육위원회, 그리고 뉴욕시 전역에서 있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직접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. 앞으로 상세한 소식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.

끝으로 저희 교육청의 새로운 웹페이지—**새학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-** schools.nyc.gov/backtoschool 를 참조하시어 2014-15 학년도를 잘 준비하십시오. 여기에는 학교 일과시간, 통학 정보 등이 나와 있습니다.

저는 우리 뉴욕시의 110 만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저와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안녕히 계십시오.

Carmen Fariña

Carmen Fariña
뉴욕시 교육감

T&I-21474 (Korean)